



히로시마(広島)가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



들어가기

25학번 김모은, 곽다서, 임모은

히로시마(広島)의 대표 음식인 오코노미야키는 전쟁 후, 원자폭탄의 피해와 고난 속에서 성장해온 음식으로, 그 자체로 고유의 지역성과 역사가 녹아 있는 음식이다. 이러한 전후 복구 의미를 가지는 오코노미야키가 현재에는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에 의해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해 전달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의 역사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는 1920~30년대에 얇은 밀가루 반죽 위에 파, 가스오부시, 튀김 부스라기 등을 얹어 철판에 구워 먹던 간단한 간식으로 유행했던 '一銭洋食(잇센 요쇼쿠)'라는 서민 음식에서 비롯 되었다. 이 음식에서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이후, 폐허가 된 히로시마에서는 여성들이 생계 수단을 위해 집 처마를 개조해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만들게 된다. 미국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가 주재료가 되어, 기존 잇센 요쇼쿠에서 더욱 포만감을 주기 위해 양배추와 달걀, 돼지고기 등을 추가로 얹어 철판에 구워 먹으며 생존을 위한 음식이자 전후 복구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복구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음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얇은 반죽 위에 양배추와 콩나물, 돼지고기, 달걀, 그리고 중화면 이외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 먹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가 탄생했다.

반죽에 재료를 넣고 굽는 간사이(오사카) 식 오코노미야키



재료를 굽고 쌓아올리는 히로시마 식 오코노미야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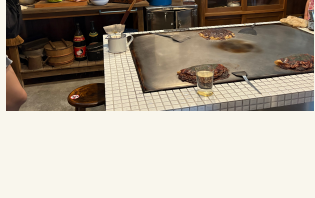
I. 오코노미야키와 함께 성장한 기업, 히로시마의 역사를 알린다.

: 소스회사 오타후쿠 (オタフ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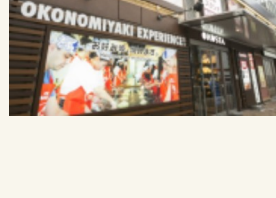
오타후쿠 주식회사는 1922년 히로시마에서 작은 주류·간장 도매업으로 출발했다. 1940년대 후반, 오코노미야키가 히로시마에서 전후 복구 음식으로써 자리 잡아가던 시기에 오타후쿠는 오코노미야키에도 우스터 소스를 적용 해보기 위해 오코노미야키 점주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그 후, 오코노미야키 사장님들과의 대화와 실험 등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대의 대중화 된 걸쭉하고 달달한 오코노미야키 전용 소스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오코노미야키와 함께 성장한 오타후쿠는 현재, 상품 제조 뿐 아니라 오코노미야키와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오코스타 (OKOSTA)' 쿠킹스튜디오에서는 방문하는 이들에게 오코노미야키 만들기 및 관련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오코노미야키 박물관에서는 매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공장 및 박물관 투어를 통해서 오타후쿠와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의 역사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위 소개한 활동들을 통해 오코노미야키가 가지는 전후 복구의 의미를 전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 Egg Wood의 오코노미야키 박물관 중 초기의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재현한 공간
*출처 2025.07.30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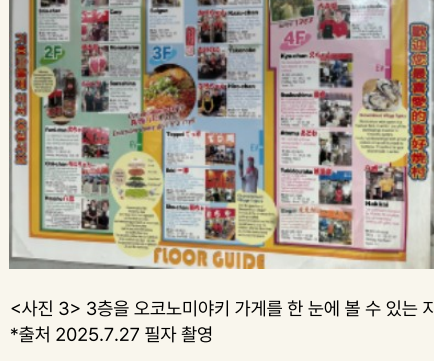
<사진 2> 오코스타 스튜디오 외관
*출처 Hiroshima Drive

II. 역사적 공간에서 히로시마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다.

: 오코노미무라 (お好み村)

히로시마 중심부의 오코노미무라는 지역 오코노미야키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명소이다. 3층 건물 안에 25개의 전문점이 모여 있으며, 각 가게는 저마다의 조리법과 재료, 메뉴로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의 다양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시작은 1965년 무렵, 히로시마 도심인 신텐지에 생겨난 오코노미야키 포장마차 거리였다. 전후 거리 노점에서 시작된 오코노미야키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철판 가게들이 모였고, 1990년대에는 한 건물에 입주해 '오코노미무라'라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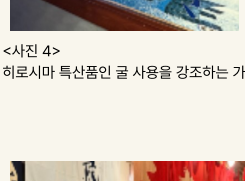
<사진 3> 3층을 오코노미야키 가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
*출처 2025.7.27 필자 촬영

이 장소는 히로시마의 전후 복구 과정과 함께 성장해 온 오코노미야키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히로시마라는 지역의 오코노미야키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전달하며, 음식 속에 녹아있는 고난과 복구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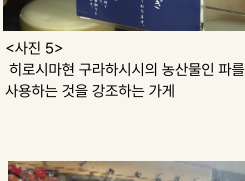
다수의 점포들이 전후 히로시마의 복구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한 장소인 만큼, 이곳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관광객에게 히로시마의 지역성을 전달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점포들은 아래의 (사진 4), (사진 5), (사진 6)처럼 가게 내부에 히로시마의 지역 농산물인 굴, 파, 레몬 등의 존재를 활용하여 음식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전달하고 있었다. 더불어, (사진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명 연예인, 스포츠 팀의 사진과 사인을 전시한 가게들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와 더불어 (사진 8)의 가게에서는 히로시마의 카프 야구팀의 팬들은 일부러 야구팀의 사진과 굿즈 등으로 꾸며진 오코노미야키 집을 방문하는 성지순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진 9)의 가게는 히로시마 내에서 개최하는 콘서트 및 스포츠 대회의 포스터로 장식함으로써, 해당 이벤트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타겟팅하려는 전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코노미무라에서는 이곳만의 풍경들이 활용되어 전후의 역사를 간직한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가 다양한 지역 농산물, 히로시마의 특징들과 연결되어 방문객에게 히로시마만의 이야기와 매력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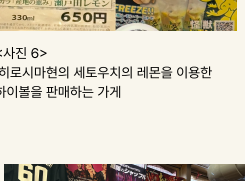
오코노미무라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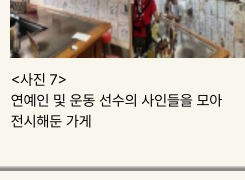
<사진 4> 히로시마 특산품인 굴 사용을 강조하는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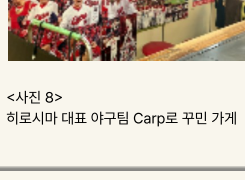
<사진 5> 히로시마현 구라하시시의 농산물인 파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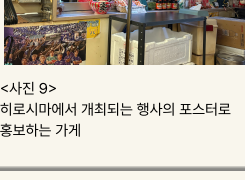
<사진 6> 히로시마현의 세토우지의 레몬을 이용한 하이볼을 판매하는 가게



<사진 7> 연예인 및 운동 선수의 사인들을 모아 전시해둔 가게



<사진 8> 히로시마 대표 야구팀 Carp로 꾸민 가게



<사진 9>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포스터로 홍보하는 가게

*출처 2025.7.28 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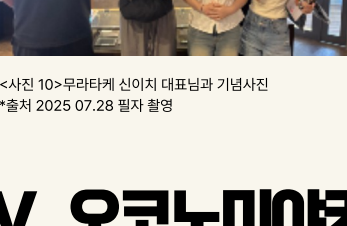
III. 히로시마에서 오코노미야키 산업 기반을 개선하다.

: 철판 제조 회사 K2S steel

오코노미야키는 철판 위에서 재료를 각각 조리하고 층층이 쌓는 독특한 조리 기법을 가지고 있기에, 철판은 오코노미야키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K2S Steel은 오코노미야키 및 철판 음식 조리용 철판을 제작하는 히로시마 소재의 회사이다.

K2S Steel의 대표인 무라타케 신이치 씨로부터 회사의 설립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과거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키 가게들은 철판을 구입할 때 중간 브로커를 거쳐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키가 전후 복구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코노미야키의 대표 도시인 히로시마에 정착 철판을 정직하게 공급해 줄 회사가 없었다"는 현실을 문제 삼았고, 외식업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조리 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K2S는 단순히 철판을 제작·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넘어 지역 외식업자들이 조리기기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적 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현재는 단순 철판 회사에 그치지 않고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자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내의 의미 확산을 위해 철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도 오코노미야키를 널리 위해 (CHINCHICURIN) 이라는 철판 요리 프랜차이즈를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다.



<사진 10> 무라타케 신이치 대표님과 기념사진
*출처 2025 07.28 필자 촬영

IV.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알린다.

: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재단 법인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는, 오코노미야키 및 관련된 식문화의 조사 연구를 통해 오코노미야키를 널리 세계에 보급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앞서 소개한 기업들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내외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오코노미야키를 알리고 있다. 아래의 세 활동들을 통해 히로시마 내에서 다방면으로 지역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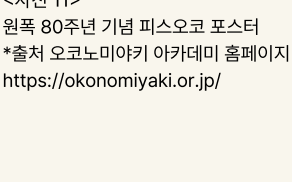
- 공동체의 연결을 통해 참여자가 함께 평화를 기리다.

'PeaceOko' 프로젝트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일을 맞아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와 히로시마 평화 문화 센터, 그리고 100여 개의 가게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오코노미야키 위에 평화 메시지를 적고 '#peaceoko'와 함께 공유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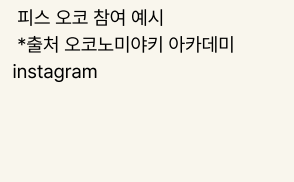
위와 더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오코노미야키 가게에서 다양한 재성종이에 평화 메시지를 작성함으로써 함께 기억과 평화를 기리는 참여형 문화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이후 11월에 매년 개최되는 히로시마 평화 문화 축제의 전시물로서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평화를 기릴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오코노미야키 = 평화"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 이벤트를 참여하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은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이 속에 깃든 평화의 오코노미야키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사진 13) 속 오코노미야키는 히로시마의 세라츠(세라마)에 위치한 와라야의 손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음식 속의 글씨 "せら 笑家"는 "웃고 즐거움이 있는 집"을 의미하며,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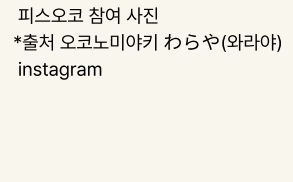
이 행사는 오코노미야키라는 전후 복구 음식이자 지역의 소울푸드를 매개로 기업·시민·가게·지역이 연결되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평화와 공동체적 실천을 세계에 발산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진 11> 원폭 80주년 기념 피스코 포스터
위쪽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okonomiyaki.or.jp/



<사진 12> 피스코 참여 예시
*출처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 instagram



<사진 13> 피스코 참여 사진
*출처 오코노미야키 わらや(와라야) instagram

2. 지역의 취약 계층 복지를 통해 역사를 되새기게 하다.

'어린이 식당(子ども食堂)'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를 제공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복지 공간이다.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어린이 식당 '에가오 식당(えがお食堂)'과 협력해 매년 약 5회 정도 지역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카데미에 가입한 기업인 오타후쿠, K2S와 같은 기업은 음식과 철판 등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은 아이들의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마련해 조리해준다. 이를 통해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를 매개로 여러 공동체가 협력해 히로시마의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보조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어 케첩 등을 활용한 오코노미야키라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이를 통해 오코노미야키를 매개로 여러 공동체가 협력해 히로시마의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보조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코노미야키를 매개로 히로시마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생동 지원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히로시마 평화의 상징인 오코노미야키를 접하게 하며, 역사를 되새기게 하려는 의도를 느꼈다.

3. 지역 축제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전하다.

오코노미야키 관련 단체와 지역 기업들은 히로시마의 주요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5월에 열리는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 기간에는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 속 기업들이 공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코스를 운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돕는다. 이 과정 속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오코노미야키라는 음식을 보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오코노미야키로 히로시마의 평화라는 의미를 전달 수 있다.

나가기

K2S 철판 회사 대표는 "전후의 히로시마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오코노미야키를 후대의 아이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또한, 방문한 기업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참여와 활동들을 통해 이 말들이 증명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위 (사진14)에서 히로시마 내외의 다양한 산업과, 오코노미야키 아카데미라는 층계가 다양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히로시마에서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의미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오코노미야키가 배를 채우는 한 끼였을 수 있으나, 지금의 오코노미야키는 히로시마의 전후 복구 복구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원복 후 황폐하고 힘들었던 히로시마의 큰 버팀목이 되어준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여러 주체들이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의미를 발전 시켜가고 있다. 이처럼 히로시마를 복구시켜준 오코노미야키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후 복구의 기억을 있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코노미야키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히로시마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정직하게 의미를 만들어 가며, 지역과 사람, 그리고 세계를 잇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전후복구의 정신으로부터, 여러 의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오코노미야키가 앞으로 지역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의미로 나아갈지 기대가 된다.



<사진 14> 히로시마 오코노미야키 속 의미가 내포된 관계도
* 필자 제작